출근 대신 아이 돌보며 행복한 아빠들

광주·전남 육아휴직 지난해 197명…4년새 4배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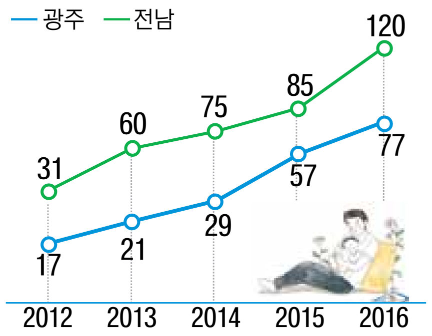
새 트렌드 정착 가능성…고용청 인센티브제 등 시행

광주시 남구 양동에 사는 공무원 김선정(40)씨는 둘째아이가 태어난 2013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그때는 지금처럼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라 주변에서는 말리기도 했다. 하지만, 집에서 혼자 두 아이를 보며 고생할 아내 생각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로 마음 먹었다. 휴직한 3개월 동안 김씨는 매일 아침 큰 아이 아침밥 먹이는 일부터 시작해 갓 태어난 작은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 아내를 대신해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김씨는 "직장일을 할 때보다 집안일을 하며 아이와 하루종일 부대끼며 살 때가 '진짜 아빠'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아이 보는 아빠'들이 크게 늘고 있다. 광주·전남 남성육아휴직자는 최근 4년새 4배가량 급증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남성육아휴직자는 총 197명이었다. 이 중 광주는 77명, 전남은 120명이었다. 이는 전년대비 광주는 43.8%(20명), 전남은 70.8%(35명)가 증가한 것이다.

■광주·전남 남성육아휴직 현황



연도별 남성육아휴직자는 광주의 경우 2012년 17명, 2013년 21명, 2014년 29명에서 2015년 57명으로 2배가량 급증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77명을 기록했다.

전남은 같은 기간 31명에서 60명, 75명, 85명으로 증가해 지난해 120명이 휴직했다. 4년사이에 광주 4.5배, 전남 3.9배 폭증한 것이다.

'육아휴직'이란 현재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여 근로자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각각 최대 1년간(부모 합산 최대 2년간)씩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40%(상한 50만원, 하한 100만원)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일·가정의 양립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육아휴직률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아빠의 달' 운영 등 제도적 뒷받침도 육아휴직 증가의 이유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남성육아휴직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아빠의 달'을 운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등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들의 육아휴직의 증가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육아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남성육아휴직 장려를 통해 임신·출산·육아기 일하는 엄마·아빠들의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과 저출산 극복을 도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자치구, 유신 잔재 새마을기 철거해야"

박근혜퇴진광주본부 공문…내일 금남로 촛불집회

최근 광주시청사 새마을기를 철거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번에는 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새마을기 철거를 요구했다. 기한을 정해두고 자체적으로 내리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에 나서 직접 철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각 구청, 구의회 청사 새마을기 게양 현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오는 15일까지 구청 및 의회 청사에 있는 새마을기 철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라고도 요청했다.

이들은 "15일까지 새마을기 게양 현황을 공개하고 걸려 있는 새마을기를 철거해야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유신 잔재물인 새마을회 특혜 지원과 기계적인 새마을기 게양은 최소한 광주에서는 조속히 사라져야한다. 시민사회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에 나설 것"고 말했다.

단체는 지난달 19일 광주시청 청사에 걸려있던 새마을기를 게양대에서 떼어냈다. 단체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새마을운동회는 박정희 유신 정권의 유물"이라며 "새마을회는 수십 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사업비와 사무공간, 운영보조금 등 특혜를 받아왔다. 이제는 그 특혜를 없애야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주말인 4일 오후 광주 금남로에서 제 14차 박근혜퇴진 광주시국촛불대회를 연다. 이날 촛불 집회 주제는 이른바 '입춘송박(立春送朴·봄은 왔고 박근혜는 가라)'이다.

황성효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상황실장은 "이번 주말 집회는 정유년 새해 첫 집회로 박근혜 퇴진, 우병우, 황교안 등 부역자가 처벌되는날까지 촛불을 계속 켜겠다는 시민들의 투쟁선포의 자리"라며 "청와대와 재벌, 보수단체간 관제데모 커넥션을 시민에게 집중 홍보하고 시민들과 함께 규탄하는 행사도 마련됐다"고 전했다.

오후 4시부터 문화공연 등 사전행사가 금남로 곳곳에서 진행되며 6시께 본행사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에 박 대통령을 조속히 파면하라는 촉구의 의미를 담아 광주지방법원까지 촛불 대행진도 펼친다. 오후 8시 또는 9시 정리집회에는 가수 김장훈씨가 와서 공연도 펼친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해빙기 안전 점검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2일 운암동 광주지방기상청 인근 급경사지를 찾아 해빙기 붕괴 우려는 없는지 살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7:30	달뜸	11:17
해짐	18:03	달짐	--:--

봄이 오는 소리

기온이 올라 예년보다 포근하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맑은 뒤 흐림	-3/9	보 성	맑은 뒤 흐림	-3/9
목 포	맑은 뒤 흐림	-1/7	순 천	맑은 뒤 흐림	0/10
여 수	맑은 뒤 흐림	1/10	영 광	맑은 뒤 흐림	-5/7
나 주	맑은 뒤 흐림	-6/8	진 도	맑은 뒤 흐림	0/6
완 도	맑은 뒤 흐림	0/9	전 주	맑은 뒤 흐림	-3/7
구 례	맑은 뒤 흐림	-3/8	군 산	맑은 뒤 흐림	-4/7
강 진	맑은 뒤 흐림	-3/10	남 원	맑은 뒤 흐림	-5/9
해 남	맑은 뒤 흐림	-3/8	흑산도	맑은 뒤 흐림	3/8
장 성	맑은 뒤 흐림	-5/8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0	남서~서	0.5
	먼바다	서~북서	1.0~1.5	남서~서	0.5~1.0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	서~북서	0.5
	먼바다(동)	북서~북	1.0~1.5	서~북서	0.5~1.0
	먼바다(서)	북서~북	1.0~2.0	북서~북	1.0~1.5

◇ **생활지수**

뇌졸중	높음
감기	매우높음
체감온도	관심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1:34	06:27
	--:--	18:45
여수	07:00	01:06
	19:38	07:00

◇ **주간 날씨**

4(토)	5(일)	6(월)	7(화)	8(수)	9(목)	10(금)
0/8	4/6	-1/6	-3/8	-2/7	-1/4	-3/3

야속한 冬장군

최근 한파에 여수 양식장 11곳 40만마리 폐사…5억원 피해

최근 며칠 새 이어진 한파로 바다 수온이 뚝 떨어지면서 양식장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여수시는 최근 급작스런 강추위로 돌산읍 군내리 양식어가 11곳에서 참돔을 비롯한 40만여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양식장에서 양식하는 물고기는 모두 67만 마리여서 거의 60%에 이르는 물고기가 한파로 폐사한 셈이다. 피해액수는 4억 8700여만원으로 추산됐다.

여수시는 이번 양식장 어류 집단 폐사가 지난 24일부터 설까지 계속된 한파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매년 비슷한 시기의 바닷물 온도는 일반적으로 7도 안팎인데 비해 이번에는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바다 수온이 4도까지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피해가 발생하자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가들은 출하 예정인 물고기들을 헐값에 조기 출하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피해를 본 11개 어가 가운데 3곳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돌산 앞바다 쪽에 냉수대가 흘러들어와 수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물고기들이 견디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광주 50대 공무원 시청 복도서 심장마비 사망

광주시청 50대 공무원이 사무실 복도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2일 오전 8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시청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던 주모(55·공업직 6급)씨가 사무실 5층 복도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구급대가 출동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주씨는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잦은 야근과 주말과 휴일에도 출근하는 등 업무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는 1991년 공직에 들어온 뒤 최근 장기재직 휴가를 얻어 가족과 유럽여행을 다녀온 뒤 이날 여행 뒤 첫 출근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고 심근경색으로 인한 병사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